

사회

억대 수의계약 뇌물 6급이 독식?

경찰, 광주 남구청 계장 구속 ... 고위직 연루 수사 확대

4년간 35차례 공사비 20~25% 쟁거

수의계약을 대가로 4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장기간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관련 공무원과 구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 35차례에 걸쳐 1억원 넘게 쟁거 = 광주시 남구청 공공시설과 계약인 채모(41·6급 기술직·구속)씨가 맡고 있는 업무는 공공시설물 보수공사 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채씨는 가로등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돈을 상납받아왔다. 5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채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4년 동안 매번 공사비의

20~25%를 쟁겼으며, 그가 이 한 업체에서 받은 돈은 35차례에 걸쳐 모두 1억148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1시45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라인아파트 인근에서 이 업체 대표 김모(45)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채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추가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고위직 공무원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채씨가 가로등 사업 이외에도 전기 관련 물품 구입 업무까지 맡고 있어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가 자신의 차에 김씨를 태운 뒤 남구청 주변을 3분 가량 도는 사이 차에서 돈을 받아 챙길 정도로 뇌물을 받는 것에 적극적이었

다”고 말했다.

◇ 고위직 연루됐나 =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이틀에 걸쳐 남구청을 압수 수색하고 남구청 회계 및 전기공사 담당자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채씨의 통장 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채씨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점 ▲공사비의 20~25%의 고비율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 등을 볼 때 경제 권력이 있는 고위공무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남구청의 다른 공사 발주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주목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안으로 수의계약 결정권자인 과장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들을 소환할 방침이어서 남구청 전반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허술한 수의계약 구조 = 수의계약 관련 뇌물수수사건이 빈번히 터져 나오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 공사 금액이 소규모(지자체별 1000만~3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구나 시·군의 경우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일부러 수의계약 대상 공사액에 맞춰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 발주하기도 한다. 의회 의원 뒤편으로 이들 수의계약을 분배한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사비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는 2개 이상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허술한 수의계약 구조가 공무원과 업체의 검은 유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희기자 kimho@kwangju.co.kr



6·15 10주년 사진전

6일 시민들이 광주 중심사 입구 문빈정사 앞에서 열린 6·15 10주기 사진전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6·15 당시의 사진을 비롯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담은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거사범 수사 속도 낸다

검찰과 경찰이 6·2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지난 5일 청년들을 동원해 군수 후보의 불법 선거현장을 적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성군의회 이모 의원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거 초반 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일부 청년들에게 일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상대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검찰, 장성군의원 긴급체포

경선 후보 등 4명 압수수색

정성운)은 지난 4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2명과 광역의원 당선자, 민주당 관계자 등 4명 중 2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2 선거와 관련해 14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당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가급적 한 달 내에 처리기로 했다. 법원도 선거사범의 경우 1, 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마치기로 해 연말을 전후로 선거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검찰도 6·2 선거 과정에서 180명을 입건한 것을 비롯, 모두 5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일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희기자 choi@kwangju.co.kr

유흥업소 단속 불만 40대女主인 주점에 불지르고 숨져

광주 치명동서

영업정지로 인한 운영난과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유흥주점 여주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렀다가 연기에 질식사했다.

지난 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치명동 5층 건물의 지하 1층 유흥주점 'V 노래홀'에서 불이 나 업주 박모(여·44)씨가 숨지고 주점 내부 방 8개 가운데 2개가 전소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57분께 자신의 언니(55)에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죽음을 선택해버렸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가게 안에서 연기에 질식사돼 쓰러져 있는 박씨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일 밤 영업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8시40분께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가 1시간여 동안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돌아갔다.

박씨는 또 지구대에서 나온 뒤 오전 9시10분께 광주역 한 제사음식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어 “오늘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다. 제사상으로 50명이 먹을 떡과 돼지고기, 막걸리를 상무지구대에 밤 10시까지 보내달라. 돈은 통장으로 부쳐주겠다”고 주문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의 유흥주점은 지난해 11월 28일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지난 5월 28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박씨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박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가게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40) 김장동



고속도로 차량 충돌 11명 사상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22km 지점 주암IC 인근에서 한모(여·41)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김모(여·25)씨가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고속도로 우측 방호벽과 부딪히면서 탑승자 박모(여·50)씨가 숨지고 운전자 한씨 등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종희기자 ejkim@

모텔 투숙 여대생들 주인과 몸싸움

○ 모텔에 투숙 중이던 여대생들이 “청소를 안 해줬다”며 여주인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서행.

○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23·광양시 광양읍) 등 여대생 2명은 지난 5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호남동 J모텔에서 청소 문제를 놓고 주인 나모(47)씨와 언성을 높이던 중, 서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싸우다 양쪽 모두 폭행혐의로 입건.

○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전남 지역 모 대학 학생들로 일주일 전 현장 실습을 나와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이었으며, 경찰에서 나씨는 “학생들이 반성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당부.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조폭의 진화 ... M&A로 코스닥 기업 ‘꿀꺽’

범서방파 간부 등 2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코스닥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A사를

인수하고서 회삿돈 43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추가조작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무자본 또는 불법 ‘차입 매수’ 방식으로 코스닥기업들을 인수하고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모(48)씨와, 김씨가 인수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며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광주 콜박스와 행동대원 송모(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트럭으로 사장 살해 버스운전기사 무기징역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차량 지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김모(5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

해하고 그 아내와 아들까지 살해하려 다치게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8일 밤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D관광버스 차고지에서 이 회사 사장 류모(45)씨를 말다툼 도중 둔기로 때린 뒤 1t 트럭으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희기자 choi@

Challenge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업료, 실습료 등 교육비가 면제된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 ▶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신청자격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
수령액	무상
교육내용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교육기간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교육장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방과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전문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 홈페이지: <http://www.gju.ac.kr> | 전화문의: 010-544-4350